

제6대 서울연극협회 회장선거 입후보자

회장후보 지 춘 성
부회장후보 문삼화 정범철

연극이라!

이제는 연극이~ 다!



“ 지춘성은 **전문가**입니다.

지춘성은 **복지**를 생각합니다.

지춘성은 **공정**합니다.

지춘성은 **소통**을 우선 합니다.”

회장 후보 | **지춘성**



학력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공연영상학과 석사



수상경력

- 제15회 서울연극제 <동승> 남우주연상
- 제28회 백상예술대상 <동승> 연극부문 인기상
- 제35회 서울연극제 <알리바이 연대기> 연기상
- 2014년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
- 제67회 서울특별시문화상 연극부문수상



활동경력

- 서울연극협회 부회장, 노원연극협회 회장, 서울연극협회 이사
-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글로벌지식 평생 교육원 강의 외 다수



활동경력

〈안녕,아라발〉 〈거미여인의키스〉 〈뜨거운 양철 지붕위의 고양이〉 〈지상최후의농담〉
〈비람직한청소년〉 〈세자매〉 〈일곱집매〉 〈고령화가족〉 〈모든건타이밍〉



수상경력

· 2017 제3회 올해의연출가상
· 2014 제16회 김상열 연극상 수상



번역

· 〈미저리〉 〈Four of Us〉 〈리타 길들이기〉 〈민중의 적〉

부회장 후보 | 문삼화

학력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서울예술대학 극작과 졸업
· 한국희곡작가협회 교육원 1기 수료



수상경력

· 2006 제8회 옥랑희곡상 자유소재부문 최우수작 수상
· 2007 제4회 파크희곡상 수상
· 2013 문화체육관광부 표창
· 2014, 2015 서울연극제 연출상 수상
· 2014 대한민국 청년 연극인상 수상
· 2018 서울연극인대상 극작상 수상



활동경력

· 극발전소 301 대표
· 한국극작가협회 부이사장 역임, 서울연극협회 이사 역임
· 강원도립극단 연출



부회장 후보 | 정범철

제6대 집행부의 슬로건은 위의 표어대로 “연극이다!”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연극이~다!” 라는 다짐으로 서울연극협회를 회원들과 함께 이끌어 갈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주목받고 존경받아야 하는 인물은 예술가라고 판단됩니다. 그중에서 연극이란 장르에 몸담고 있는 연극인이야말로 사회의 리더로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회구성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에 비유하자면 연극예술가란 인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적인 깨끗한 피를 삶을 지탱하는 각 기관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지요.

사회의 심장인 연극예술가 역시 사회의 각개각층으로 에너지를 수혈하는 존재입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위상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사회의 어느 한구석에 내동댕이쳐진 상태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극예술가의 위상은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연극이니!

제6대 집행부의 슬로건은 위의 표어대로 “연극이다!”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연극이~다!” 라는 다짐으로 서울연극협회를 회원들과 함께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연극은 위기입니다. 손 안의 디지털 문화가 보편화되고 연극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연극정신을 바로잡고 세대 간의 장벽을 소통하여
급변하는 오늘의 문화정신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연극이 인생의 모두인, 연극이 인생의 전부인 서울연극인들과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연극인들의 자존감을 다시 찾고 회복할 것입니다.
서울연극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협회원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같이 갈 것이고, 서로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연극이~ 다!

회장 후보 지춘성

6 UP + 공약들

첫째, 자존감 UP!

- ① 연극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서울연극제를 전문연극인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연극제를 멘토링 워크숍의 체계를 갖추어 도전성과 실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연극제를 각 지역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연극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평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정성 UP!

- ① 연극제 참가단체 선정 및 수상자 선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② 연극인(전문연극을 만드는 이들), 연극인(연극을 찾는 이들), 연극인(전문연극 인을 준비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6 UP + 공약들

셋째, 복지제도 UP!

- ① 연극인 복지연구소를 개설하여 실질적인 연극인의 복지정책을 연구하겠습니다.
- ② 연극인 임대주택 확보 및 혜택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③ 연극인 건강, 법률, 세금에 대한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④ 경조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근조기 및 장례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회계 투명성 UP!

- ① 타 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② 사외이사로 전문 회계사를 지정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 UP + 공약들

다섯째, 새로운 기회 UP!

- ① 매년 배출되는 3000여명의 예비연극인들이 보다 쉽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고 활로를 넓히겠습니다.
- ② 대학로에 청소년 전용극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관객에게 바람직한 연극적 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소통 UP!

- ① 연극인 사랑방 (예술가의 집 1층 카페) 추진을 위해 예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 ② 매월 1회, 다양한 연극인들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연극이리시!
이제는 연극이~ 다!